

제주도 방언 연구 동향과 과제

오 창 명*

〈차 례〉

- I. 서론
- II. 제주도 방언의 연구 동향과 과제
 - 1. 음운론적인 측면
 - 2. 형태소 분석과 표기
 - 3. 형태론 및 통사론적 측면
 - 4. 어휘·의미론적 측면
 - 5. 자료집 및 사전의 발간
- III. 결론

I. 서론

이 글은 현재까지의 현대 제주도 방언¹⁾ 연구의 동향을 점검하고 2000년대 이후의 지향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제주도 방언 연구가 발전하고 나아가 제주학 발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탐라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1) 국어의 한 방언으로써의 제주도방언은 濟州方言, 濟州地域語, 濟州語 또는 제주말 등의 용어로 쓰기도 한다. 추자도를 포함하는 '지역방언'으로 인식한다면 濟州道方言 등의 용어를 써야 하나, 추자면 지역은 전라도방언에 가까우므로 엄밀하게는 濟州島方言이라 해야 한다. 국어학에서는 표준말과 달리, 그 지방에서만 사용하는 말을 '방언'이라 하고, 방언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를 '방언학'이라고 하므로 '제주도방언' 또는 '제주방언'이라는 용어가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라는 개념은 언어사적 개념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시대'라는 개념으로 쓴 것이다.

전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연구 성과의 검토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하여 전체적인 방향을 가늠하려고 한다.

II. 제주도 방언의 연구 동향과 과제

제주도 방언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 등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것으로는 현평효(1979a, 1987),²⁾ 강정희(1992),³⁾ 송상조(1996)⁴⁾ 등이 있다. 음운론적인 연구로는 현평효(1964, 1971)⁵⁾, 김광웅(1988),⁶⁾ 정승철(1988, 1995),⁷⁾ 고동호(1995)⁸⁾ 등을 참고할 수 있고, 형태·통사론적인 연구로는 현평효(1985),⁹⁾ 강정희(1988),¹⁰⁾ 송상조(1991),¹¹⁾ 성낙수(1992),¹²⁾ 홍종립(1993)¹³⁾ 등이 있고, 어휘론적인 연구로는 석주명(1947),¹⁴⁾ 박용후(1960, 1988),¹⁵⁾ 현평효(1962, 1985),¹⁶⁾ 강영봉(1993, 1994, 1997)¹⁷⁾ 등이 있다.

-
- 2) 현평효(1979). "제주도방언연구에 대한 검토", 『방언』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평효(1987). "제주도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연구』 4호, 제주도연구회.
 - 3) 강정희(1992). "제주방언 연구 개관", 『남북한의 방언 연구: 그 현황과 과제』, 경운출판사.
 - 4) 송상조(1996). "방언",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 5) 현평효(1964). "제주도방언의 단모음 설정", 『한국언어문학』 2, 한국언어문학회.
현평효(1971). "제주도 방언의 음운", 『교육제주』 17, 제주시교육청.
 - 6) 김광웅(1988). "제주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 7) 정승철(1988).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국어연구』 84, 국어연구회.
정승철(1995). 『제주도방언의 통시음운론』, 국어학회.
 - 8) 고동호(1995). "국어 마찰음의 통시적 연구: 제주도방언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 10) 강정희(1988). 『제주방언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 11) 송상조(1991). "제주도방언의 접미파생어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 12) 성낙수(1992).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인 연구』, 계명문화사.
 - 13) 홍종립(1993).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 한신문화사.
 - 14)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사.
 - 15) 박용후(1960, 1988). 『제주방언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16)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정연사.
 - 17) 강영봉(1993). "제주도방언의 동물 이름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제주도 방언 연구 동향과 과제

위의 자료집이나 연구들, 그리고 연구 성과를 검토한 글들에서 그 동안의 연구 동향이 대부분 파악되었기 때문에 다시 과거의 업적들을 발표 순서에 따라 적절히 정리하고 어떤 의견을 누가 최초로 내어놓았는지를 밝히는 연구사를 기술하지는 않겠다. 여기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등을 살펴보겠다. 곧 평가할 것은 평가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 하겠다.

크게 음운론적 측면과 형태·통사론적인 측면, 어휘·의미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는데, 형태론적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형태소 분석과 표기의 문제는 분리하여 논의하였다. 이는 제주도 방언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분석 등에서 형태소 분석과 표기를 가볍게 다루는 경우가 이외로 많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점의 하나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1) 음운론적 측면

제주도 방언의 음운 수와 단모음·이중모음 체계와 변화, 자음의 체계와 변화 등에 대해서는 현평호(1964)와 정승철(1988, 1995) 등에서 언급되었다. 장년층에서는 단모음은 'ㅣ, ㅑ, ㅕ, ㅡ, ㅓ, ㅗ, ㅛ, ㅜ, ㅝ' 등 9개, 이중모음은 'ㅑ, ㅕ, ㅓ, ㅗ, ㅛ, ㅜ, ㅝ, ㅞ' (j계) / 'ㅓ, ㅕ, ㅑ, ㅓ, ㅗ(w계) / ㅛ' 등 13개로 실현되는데, 젊은층에서는 단모음의 경우 'ㅑ'와 'ㅕ'를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하고 일찍부터 중세국어의 'ㅓ'에 대응하는 모음으로 국어학계에 알려진 'ㅓ' 역시 발음을 잘 못 하거나 'ㅓ'와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보고되었다. 'ㅓ'의 이중모음인 'ㅓ'[yʌ]는 어두에서만 유지되고 있는데 젊은층에서는 주로 'ㅓ'나 'ㅓ'로 발음하고 있음도 조사·보고되었다.

단자음의 수는 표준어의 19개에 유성후두음 'ㅇ'[h](불휘/불이, 멀위/멀이, ㄱ르/ㄱ를/꺾이)을 추가하여 20개로 조사·보고되었다. 말음에 쓰이는 단자음은 체언의 경우 'ㄱ, ㄴ, ㄷ, ㅁ, ㅂ, ㅅ, ㅇ, ㅈ, ㅊ' 등 9개, 용언어간의 경우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등 10개가 쓰이는 것으로 조사·보고되었다. 한편

강영봉(1994), 『제주의 언어(1)』, 제주문화.

강영봉(1997), 『제주의 언어(2)』, 제주문화.

‘ㅌ’과 ‘ㄹ’ 발음을 가진 용언어간 ‘마트-[任·嗅·受], 지프-[拈·深], 노프-[高], 야트-·야프-[低]’ 등에 대해서, ‘말-, 짚-, 높-, 얹-·얹-’ 등의 고행이라는 설(김홍식, 1977:43), 음절 신장 현상이라는 설(김광웅, 1986), 용언 어간말 ‘-’ 탈락 규칙에 유추되어 어간말에 ‘-’를 보태 2음절로 어간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졌다는 설(정승철, 1988:17~26) 등이 제기되었다. 어간의 음절말자음군은 ‘ㄹ ㄱ, ㄹㅁ, ㄹㅂ’만 나타나고(값→깎, 몫→목, 낫→녁), ‘ㄹㄱ’의 경우 표준어와 같이 ‘ㄹ’이나 ‘ㄱ’으로 불규칙하게 발음된다.(혹·혹/홀담, 득/들기알 등)

합성어 중 ‘ㅎ’이 개재되는 것이 많은데 대부분 ‘ㅎ’ 발음을 가진 명사에 기원한다는 것도 조사·보고되었다.¹⁸⁾

표준어에서 단모음 또는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귀’는 이중모음으로만 실현되고, ‘늪’은 이중모음 ‘늪’로만 실현되는 것(쇄, 가시소행이 등)으로 조사·보고되었다.

운소(韻素)인 음장(音長), 고조(音調, 또는 聲調), 강세(強勢)는 제주도 방언에서 변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억양(抑揚)은 문말에서 변별력을 갖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곧 일부의 어말어미가 문말에서 상승조 어조에 의지하면 의문문이 되고 하강조 어조에 의지하면 평서문이 된다는 것이다.

2) 형태소 분석과 표기

제주도 방언의 형태소 분석과 표기 문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태소 분석과 표기의 문제는 사실 별 개 문제이다. 전자는 형태론의 문제이고 후자는 어떤 문자로써 한 언어를 표기하는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둘을 하나로 묶어 다루는 이유는 가령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에는 표준어의 그것과 같이 원형을 밝혀 적으면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거나 연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한글 맞춤법의 기본 뼈대는 『훈민정음해례』에 규정되어 있었으

18) 송상조(1982), “‘ㅎ’개입에 관한 고찰”,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중립(1998), “제주방언의 ‘ㅎ’발음 명사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19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cf) 바르카다, 드르카다, 므슬카다·므실카다

제주도 방언 연구 동향과 과제

나, 명사와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연결하느냐 분철하느냐 하는 것은 규정이 없어 창제 당시에도 혼란을 겪었다. 이런 혼란이 계속 이어지다가 국가 차원의 세부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1933년 11월에 공포된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語法에 맞도록 함으로써 原則을 삼는다.”(청론 제1장),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되, 토는 그 윗말에 붙여 쓴다.”고 하여, 소리나는 대로 적되 형태를 중시하여 주변의 환경에 따라 바뀌는 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단어나 형태소 등의 모습을 한 가지 모양으로 고정시키는 방향을 택하고 띄어쓰기를 택하였다.

표기의 혼란은 제주도 방언을 표기하는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 1) 죽젠하다 사랏수다. 門을 열앙노라

<이상 小倉進平(1924)¹⁹에서 뽑음.>

- 2) ㄱ라롭서(말좀하십시오), ㄱ랍써(말하고있다), 두러옵서(들어오시오), 두러옵 세계(들어오시오), 드라메다(달어매다), 드라젓다(달려있다), 기시린 도야지가 드라멘 도야지 타령한다. 돛 폴아 혼 냥 개 폴아 닷 돈 혼니 양반인가.

<이상 석주명(1947)²⁰에서 뽑음.>

- 3) ㄱ랍써, ㄱ랍서, ㄱ랍수다, ㄱ란디아, ㄱ랍수과 / 우러써, 우러수다 / 노랏써, 노랏수다

<이상 이승녕(1957)²¹에서 뽑음.>

- 4) 거수로 박아지라(곤두박이치다), 기시린 도새기 돌아 멘 도새기 타령한다. 돛 폴아 혼 냥 개 폴아 닷 돈 혼니 양반인가, 말 곧다(말을 하다), 아גיע게 말도 들어버릇한다. 아는 질도 들엉 걸으라

<이상 박용후(1960, 1988)²²에서 뽑음.>

- 5) 종년이 밧갈쇠에 오십 멩 먹을 거 싯거 간 보니(28쪽)

나만 오라네(와서) 일흐젠(일할려고) 흥단(하다가) 기자(그저) 나만이고 흥

19) 小倉進平(1924), “朝鮮語の歴史的 연구上より見たる濟州島方言の價値”, 『南部朝鮮の方言』, 朝鮮史學會.

20) 석주명(1947), 앞의 책.

21) 이승녕(1957),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동방학지』 3집,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22) 박용후(1960, 1988), 앞의 책.

나네 일도 아니하고 누어서(누웠지).(29쪽)
 경하니 종년이 글찌(그) 후제(후에) 오랏거든. 오라서 주인 안티(주인에게)
 말했거든...다시 시경 가?...남은 건 나 시경 가주 뭐.(29쪽)
 경 해가난(해가니) 소임제덜(소임자들)이 모다들언(모여서) 총으로 마천 죽
 여 부러서(버렸어).(32쪽)

〈이상 『한국구비문학대계 9-3』²³⁾에서 뽑음.〉

- 6) 한라산 꼭대기 꿩영 저 산방산 데껴 붙었어. 데껴 붙언 흐난 그눔은 웃어져
 불고, 그때 웃어질 거지게, 산꼭대기 꿩어질 적에 그눔은 웃어전.(56쪽)
 장남을 하나 어디 간 구했어. 아무디 간 밧 파는 거 앓안 머.(98쪽)

〈이상 『제주설화집성1』²⁴⁾에서 뽑음.〉

- 7) 아방ㄱ라 ㄱ라 불라(16쪽), 지주섬데레 드라난(66쪽), 집의서랑 곧지 말라
 (81쪽)
 사람들{Ø, 을} 돈 죽여불고, 물건들을 다 아사가부난, 공출{Ø, 을} 해연 살
 {Ø, 을} 견어난 것도 ㄱ라뵈써(54쪽)

〈이상 강정희(1988)²⁵⁾에서 뽑음.〉

- 8) 가인 집더레 돌아랜 굴아라(61쪽), 가이 언제 오과랜 굴아니?(82쪽)
 영숙인 오늘 검질 메과랜 ㄱ라라(92쪽), 할망은 집더레 가누랜 ㄱ라라(92쪽)
 자인 밥 먹엄써(47쪽), 자인 ㄱ싸 왓저(47쪽), 자인 아방신디 욱들엄서라(70쪽)
 이디 신 돈 나 아삼써(111쪽), 주는 돈이난 말암써(111쪽)

〈이상 홍종립(1993)²⁶⁾에서 뽑음.〉

- 9) 질렛 들도 연분이 이서사 촌다(5쪽), 느 책 방안네 이서라(6쪽), 그 베엔 사
 림덜 네이 타서라(11쪽)

〈이상 홍종립(1998)²⁷⁾에서 뽑음.〉

- 10) 가이가 지금 질을 막암서어, 난 지금 밥 먹엄서어, 요센 말이 돏암서어(138
 쪽)
 어젠 가이가 질을 막앗어, 난 ㄱ싸 밥 먹엇어, 어치낙은 날이 춤 돏앗어, 그

23) 현용준·김영돈(1983), 『한국구비문학대계 9-3(서귀포시·남제주군 편)』,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24) 현용준·김영돈·현길언(1985),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5) 강정희(1988), 앞의 책.

26) 홍종립(1993), 앞의 책.

27) 홍종립(1998), “제주방언의 ‘ㅎ’말음 명사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19호, 제주대학
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도 방언 연구 동향과 과제

거 우리 물이랏어(139쪽)

가이가 지금 질을 막암스쑤다. 난 ㄱ싸 밥 먹엇쑤다(141쪽)

가이가 질을 막암스저(143쪽)

나가 철수 아방신디 가이가 지금 막암스젠 굴앗어(145쪽)

〈이상 정승철(1998)²⁸⁾에서 뽑음.〉

1)의 '사랏수다'의 '사라'와 '열양노라'의 '열양'은 정반대의 표기 규칙이다. '사랏수다'는 '살앗수다'로 표기할 법하다. '노라'는 현대국어에서는 '놓아, 놓아라, 놔, 놔라'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하므로 인정해도 좋을 것 같다. 2)의 경우 정상적인 국어학자의 표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철표기를 주로 했으면서도 '드라멘'과 '풀아'와 같은 혼란은 보이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3)은 국어학자의 예문인데도 제대로 표기하지 못했다. 'ㄱ르다, 우르다, 노르다'가 있지 않은 한 인정할 수 없는 표기들이다. 4)의 경우는 국어학을 공부한 사람답게 비교적 현대 맞춤법에 맞추어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5)와 6)은 민간에서 녹음한 설화를 풀어쓴 것인데, 전자는 되도록 소리에 충실하도록 표기했고, 후자는 되도록 형태를 고정시켜 표기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일인의 글에 보이는 '싯기'와 '시경'의 혼란은 문제가 된다. '시끄-[載]'가 동사어간이면 당연히 후자가 맞다. 載의 뜻으로 '싯-'나 '싯기-'는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7)과 8), 9)는 방언학자의 글에서 뽑은 것인데도 혼란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방언이 '굴다[曰]는 당연히 '굴으니, 굴으라, 굴아라' 등으로 활용한다. '둔다[走]도 '둔 단 보난'이 쓰이므로 '드르-'가 어간이 될 수 없다. 8)에서는 '앗암쩌'를 '아삼쩌'로 잘못 적고 있다. '말암쩌'도 '마트-'의 활용이기 때문에 '마탐쩌'로 표기해야 한다. 10)의 경우엔 지나치게 형태음소를 밝혀 적고 있어 표기상 눈에 거슬린다. '우트레, 바르트레, 바르참으레'를 '웅드레/우응드레, 바룽드레/바르응드레, 바룽잡으레/바르응잡으레'로 적지 않는다면 '먹엄스저'는 '먹엄쩌', '먹엄스어'는 '먹엄서'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러나 '먹엄쩌'의 경우, 1995년 제주 방언연구회에서 제정한 <제주어표기법>의 제21항과 배치된다. 그리고 '먹엄스어'를 '먹엄서'로 적는 경우 '먹엇어'의 '-어'와 차별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된다. 곧 전자는 선어말어미의 일부를 어말어미에 내려쓰는데 반해 후자는 분리하여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종림(1976)에서는 '먹엄쩌,

28) 정승철(1998). 앞의 논문.

보암찌, 먹어찌, 보아찌'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글에서는 '먹엄찌, 보암찌, 먹엇저, 보앗저'로 표기하였다.

국어의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음절 단위의 표기법인데, 그 표기법으로 인하여 최소의 의미단위는 적어도 하나의 음절이어야 한다는 의식 때문에 음절단위인 통합형 활용어미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도 있다.²⁹⁾ 곧 최소 의미단위인 형태소가 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는 음절이 아니라 음소이므로 형태분석은 음소 단위에 이를 때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조 기술 언어학적 방법을 원용한 Martin(1954)은 현대국어의 '-느냐, -는가' 등을 '-는+야, -는+가' 등으로 분석하여 앞의 것을 modifier(관형사), 뒤의 것을 형식명사로 처리하고 있고, 표준어 의문의 종결어미에 쓰이는 '-냐'를 서정목(1987:38~40)은 '-(느)+니+야'로, 서태룡(1985:172)은 '-ㄴ+이+이+야'로 분석³⁰⁾하였는데, 이들은 음소 단위로 국어의 활용어미 형태를 분석하려고 한 연구자들이다. 반면에 남기심(1982)에서는 공시적인 문법체계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극한적으로 형태소를 분석하여 새로운 문법범주를 설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³¹⁾ 그러나 최근에는 형태음소론적인 차원에서의 극한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제 표기에 반영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방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 국어의 역사와 제주도 방언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형태소 확인 방법을 세우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세심하게 논의해야 한다.

3) 형태론 및 통사론적 측면

형태론은 형태소의 분석과 식별, 파생어와 합성어 등의 결합 등을 연구하는

29) 서태룡(1991), "국어 활용어미의 체계화 방법", 『문법 1』, 국어학강좌 1, 태학사.

30) Martin, S.(1954), *Korean Morphophonemics*,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서태룡(1985), "정동사어미의 형태론",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31) 남기심(1982), "국어의 공시적 기술과 형태소의 분석", 『배달말』 7, 경상대 배달말학회.

제주도 방언 연구 동향과 과제

분야이다. 그러므로 조사와 어미의 분류, 합성어와 구의 구별,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별, 형태소의 분석 등이 쟁점으로 부각된다.

제주도 방언 조사에 대해서는 이승녕(1957),³²⁾ 박용후(1960, 1988), 강근보(1978),³³⁾ 강정희(1984), 현평효(1985) 등에서 대략적인 목록이 정리되었다. 강정희(1984, 1988)에서 제주도방언 조사의 형태는 물론 통사·의미론적인 특징까지도 연구되었다. 그러나 강정희(1988:15)에 제시된 “4. 야이드레 ㄱ라 불러. 5. 어멍데레 도랜 혼난”에서 처소격으로 쓰이는 ‘드레/데레’는 사람 명사에 붙어 여격의 기능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이 문장들이 가능한 문장(문법적 문장)인지 의심스럽다. 강영봉(1981)³⁴⁾에서는 ‘드레, 신디, ㄱ라, 아울라, 안티, 아피’ 등을 후치사로 보고 통사관계를 논의하였다.

제주도 방언의 활용 어미의 목록은 김영돈(1956~57),³⁵⁾ 이승녕(1957), 홍종립(1975), 현용준(1980:902~917), 현평효(1975:119~127, 1985:497~633), 박용후(1988ㄱ:175~191 ; 1988ㄴ:16~46), 성낙수(1992), 송상조(1996)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녕(1957)에서 불완전하게 언급되었던 aspect와 관련한 어미들은 현평효(1975, 1985)³⁶⁾에서 당시까지 ‘시제’의 문법체계로 부르던 형태소들을 다른 문법범주인 ‘동작상’으로 보고 새롭게 논의하여 주목을 받았다.³⁷⁾ 이후 이남덕(1979)³⁸⁾에서 時相체계로, 홍종립(1976, 1993)에서 相체계로 논의가 이어지면서 제주도 방언도 시제를 표시하는 형태는 따로 없고 서법형태소에 기대어 시제

32) 이승녕(1957). 전계 논문.

33) 강근보(1978). “제주도방언의 曲用에 대하여”, 『논문집』 10, 제주대.

34) 강영봉(1981). “제주도방언의 후치사에 관한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김영돈(1956~57). “제주도방언의 어미활용(1)~(3)”, 『한글』 119~121호, 한글학회.

36) 현평효(1974). “제주도방언의 정동사어미연구”, 아세아문화사.

37) 제주도 방언의 동작상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 초반에 국어학계에 일었던 남기심(1972), 장석진(1973) 등 ‘동작상’에 대한 논의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당시 남기심(1972)에서는 국어에는 시제(tens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과거완료 내지 대과거로 처리되었던 ‘-었었-’을 동작상(Aspect)의 일종인 단속상이라 하였다. 이것은 시제 형태를 동작상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장석진(1973)은 ‘-어 있다, -고 있다’를 완료와 진행의 의미를 가지는 동작상으로 보았다. 오늘날 학교문법에서의 동작상은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용언의 결합에 의해 표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8) 이남덕(1982). “제주방언의 동사종결어미변화에 나타난 시상체계에 대하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0,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가 표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낙수(1992)에서는 어미의 형태와 의미는 물론 통사상의 선택제약의 특징 등이 연구되었다. 한편 송상조(1992)를 비롯한 일련의 글에서 '-오, -ㄴ'의 호응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파생어에 대한 연구는 송상조(1991)을 참고할 수 있다.

형태소 분석 중 활용어간과 활용어미를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승철(1988:42 ; 1997:113)에서는 '오다[來]의 제주도 방언으로 '오-'(자음 어미나 모음 어미 앞)와 '올-'(모음어미 앞)을 설정하고 있다. '완, 와서, 왓저 / 오란, 오라서, 오랏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은 '셀다[漏, 새다], 설다[姪, 베다], 일다[蓋, 이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ㄷ'(파생접사)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인정한다면 '오란, 오라서, 오랏저, 오람찌 / 세란, 세라서, 세랏저, 세람찌'로 표기되던 것은 '올안, 올아서, 올앗저, 올암찌 / 셀안, 셀아서, 셀앗저, 셀암찌'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주도 방언 사전류에 '올다'나 '셀다'(이 경우에는 '세다'만 등재됨.)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셀다'의 경우 '셀지, 셀고' 등의 활용은 가능하지만 '올다'의 경우 '올지, '올고' 등의 활용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어간 '올-'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기 설업시냐?'의 경우 어간과 활용어미를 분철로 표기하는데, '오람시냐?'의 경우 대부분 연철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이 둘을 다르게 보는 어간의식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상대 존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는 일찍부터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는 '-수-',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는 '-우-'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남덕(1982:3)에서는 상대존대의 선어말어미로 '-우-'만을 설정하고 있다. 곧 '먹업수다'는 '먹-+-엄-+-ㅅ-+-우-+-다'로 분석하여 '-ㅅ-'은 '-시-'의 이형태로 보고 있다. 정승철(1995:156 ; 1997:113)에서는 현대 제주방언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수'가 경음화를 거쳐 '-쑤-'로 실현된다고 하여, {-쑤-}를 대표형태소로 잡고 있다.

진행상과 완료상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는 현평효(1974:17~54)에서 '-암/엄-'은 '미완료상', '-암시/어시-'는 '미완료존속상', '-안/언-'은 '완료상', '-아시/어시-'는 '완료존속상'이라 하였다. 홍종립(1975)에서는 전자를 따랐으나 홍종립

(1976)에서는 '-암/엄-'과 '-암시/엄시-'를 '미완료상', '-안/언-'과 '-아시/어시-'를 '완료상'을 나타내는 동일형태소의 이형태로 파악하였다.³⁹⁾ 홍종립(1987: 206)에서는 전자를 實演相, 후자를 結果實演相이라 했다가, 홍종립(1993:96~125)에서는 '-암/엄-, -암시/엄시-, -암ㅅ/엄ㅅ-'(기본형은 가장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암시-'로 잡음.)은 구체적 상황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는 實演相, '-안/언-, -아시/어시-, -앗/엇-, -데-'(기본형은 '-아시-'로 잡음.)를 그 상황의 결과가 이미 실현된 結果相이라 하였다. 정승철(1997:69 ; 1998:139)도 '-암ㅅ-'은 實演이라는 양태적 의미를 가지는 진행의 선어말어미, '-앗-'은 實演이라는 양태적 의미를 가지는 완료의 선어말어미라고 하였다. 다만 홍종립과 다른 것은 선어말어미의 기저형을 음운론적인 설명의 타당성을 들어 '-암ㅅ-'과 '-앗-'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남덕(1982:3)에서는 '먹엄수다'를 '먹-+-엄-+-ㅅ-+-우-+-다'로 분석하고 있다. 곧 '-엄수-'는 '-아/어-+-ㅁ-+-ㅅ-+-우-'로 분석하고 있다.

'으크'에 대한 문제도 만만치 않다. 의도나 추측의 선어말어미로 파악되는 '-으크-'(현평효, 1974 ; 정승철, 1977)는 홍종립(1993)에서 이에 결합되는 서술어에 화자의 자의가 깃들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분간되는 단의어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또 다른 논의거리를 제공하였다. 홍종립(1981)에서는 선어말어미로, 홍종립(1993:17)에서는 명사형 分揀語尾로 보고 중앙어의 '-겠-'과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지홍(1992)에서는 "{-(으)크-}"는 공통어의 양상형태소 {-겠-}에 대응한다"고 했다. 한편 정승철(1997:77)에서는 의미적으로 중앙어의 {겠}에 대응하는 제주도 방언의 {으크}는 '을 거'에 기원하는 명사형어미일 것이라고 하였으나, 정승철(1998:140)에서는 "제주 방언의 '으크'가 의도나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라고 하였다. 이남덕(1982:6)에서는 'ㅎ키여'는 'ㅎ-+-ㅋ-+-이-+-여'(현평효, 1974:95~96)로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ㅎ-+-ㅋ+이-+-여'로 분석

39) 홍종립(1975), "제주도방언의 의문법에 대한 고찰", 『논문집』 8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홍종립(1976), "제주도방언의 선어말어미 '암/엄, 암시/엄시, 안/언, 아시/어시'에 대하여", 『김형규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과.

느 무시거 먹엄디?/자이 무시거 먹엄디? '느 무시거 먹엄시니?/자이 무시거 먹엄시니?

느 무시거 먹언디?/자이 무시거 먹언디? '느 무시거 먹어시니?/자이 무시거 먹어시니?

되고, 이때의 '-ㄱ'은 체언적 기능은 물론 '-ㄹ'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으크-'를 선어말어미로 보느냐 어말어미로 보느냐 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형태소 분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대개 표준어 '-ㄹ 것' 또는 '-겠-'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 두 형태소가 시제상 미래와 연관되어 있고 의미상 추측이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단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것은 형태소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으크-'는 그 분포와 서열에 따른다면 넓은 분포를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선어말어미 뒤에 연결되기도 하고 어간에 직접 연결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위에서와 같이 형태소 분석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소 분석과 의미 파악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합리적인 형태소 확인 방법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상조(1996:799), 정승철(1997:93~95)에서는 의문의 종결어미 '-순'을 들고 있다. 이는 박용후(1988)에 보이는 '손'에 기원하며 'ㄱ>ㅍ'의 변화를 겪은 것(정승철, 1997:81)이라고 하였다. 이는 김영돈(1956~57), 이승녕(1957), 현용준(1980), 김미경(1983),⁴⁰⁾ 현평효(1975, 1985), 성낙수(1992) 등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박용후(1988-:187)에 '물음 마침'의 '-센'과 '물음 마침'의 '-손'을 들고 있다. '물음 마침'의 '-센'은 '-던가' 또는 '-았(었)는가'의 뜻이고 풀이 씨 아래에 오고 여자 말이라고 했다. 활용형으로 '랏센, 암(엄)센, 앓(엇)센, (으)커센, (으)커랏센'을 들고 있다. '물음 마침'의 '-손'은 '-ㄴ가'의 뜻이고, 그림 씨와 잡음씨 아래에 온다고 하고, '라시커손, 랏손, 아(어)시커손, 암(엄)손, 암(엄)시커손, 앓(엇)손, (으)커손, (으)커랏손' 등의 활용형을 들고 있다. 박용후(1988-:30)에서는 '예사 낮춤'의 물음끝로 '센'과 '손'을 내세우고 다음과 같은 문장을 예로 들고 '센'과 '손'은 나이 많은 여자가 수하에게 쓰는 물음의 마침끝(박용후, 1988-:32)이라고 하였다.⁴¹⁾

농장 일을 미치센?(농장 일을 마쳤는가?)
 우물 물이 몹센?(우물 물이 맑던가?)
 철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랏센?
 우물 물이 몹앗센?

40) 김미경(1983), "제주도방언의 의문법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1) 박용후(1988-), 『제주방언연구(고찰편)』, 과학사.

제주도 방언 연구 동향과 과제

애기는 좀 잠센?
지붕 위의 박이 크업센?
농장 일이 요새 끝나커센?
남산과 삼각산은 어느 것이 노프커센?
날씨가 좋아시민 농장 일이 오늘은 끝나커랏센?
저름을 주어서민 호박이 더 크커랏센?

오늘은 하늘이 푸리손?(오늘은 하늘이 푸른가?)
아이들은 해수욕 갔손?(아이들은 해수욕 갔는가?)
서울은 요새 더웠손?(서울은 요새 더웠는가?)
농장 일은 거저 끝남손?(농장 일은 거의 끝나가는가?)
호박은 요새 크업손?(호박은 요새 크어가는가?)
날은 비가 오커손?(내일은 비가 오겠는가?)
날부터 날씨가 나쁘커손?(내일부터는 날씨가 나쁘겠는가?)
〈이상 박용후(1988:30)에서 뽑음〉

이제사 밥 먹업순?(이제야 밥 먹는가?)
가이 밥 먹었순?(그 애가 밥을 먹었는가?)
이게 누게네 말이순?(이것은 누구의 말인가?)
저 바당에 가크순?(저 바다에 가겠는가?)
영희가 친구고라 이제사 밥 먹업순 (경) 물었저.
영희가 친구고라 저 바당에 가크순 (경) 물었저.
〈이상 정승철(1997:93)에서 뽑음〉

필자는 위 의문 종결어미를 실제 발화상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만약 위 형태소가 실현된다고 하면 제주도 방언에서 의문범어미를 하나 첨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시적으로 '손'이 '순'으로 변화된 것인지 공시적으로 음운변동을 일으킨 것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간접인용문에 나타나는 '-고라/고라/과라'는 그 자체를 종결어미로 보거나 선어말어미 '-고/고/과-'에 평서범어미 '-라'가 연결된 형태로 분석하고 있다. 이송녕(1957)과 홍종립(1983:237 : 1993:78~94)⁴²⁾ 등에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언

42) 홍종립은 이 형태를 기원적으로 중세국어의 '-과라'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화자의 적극적 의식의 회상'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보았다. 고영근(1997:278~279)에서는 중세어의 '-과'가 '-거-/어-'에 선어말어미 '-오-'가 붙은 것으로, 화자가 자신의 주

급하였다. 이 어미구조체는 동작동사의 어간하고만 결합하고 서술어의 주어는 의미상 반드시 화자 자신(1인칭)이어야 하며, 후행하는 어미는 '-라'만 연결되는 분포 조건을 가진다.(홍종립, 1993:83) 시제나 상을 나타내는 어미 뒤에 통합된다. 그래서 '먹ᄃ라/과라/고라#ㅎ-', '먹ᄃ렌/고렌/과렌#ㅎ-', '먹엇ᄃ라/과라/고라#ㅎ-', '먹엇ᄃ렌/고렌/과렌#ㅎ-', '먹엄ᄃ라/과라/과라#ㅎ-', '먹엄ᄃ렌/과렌/과렌#ㅎ-' 형태로만 실현된다. 위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시제와 상을 나타내는 어미 '-암ㅅ/엄ㅅ-', '-앗/엇-' 뒤에 연결되고 간접인용문에만 쓰인다 면,43) 이때의 '-ᄃ라/과라/고라'는 형태분석을 새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사구성상 '먹ᄃ라/과라/고라#ㅎ-'는 인용동사 'ㅎ-'를 생략할 수 없고, '먹ᄃ렌/고렌/과렌#ㅎ-'는 인용동사 'ㅎ-'의 생략이 수의적이라는 것이다. '먹ᄃ렌/과렌/고렌#ㅎ-'에 보이는 '-엔'은 당연히 인용의 조사이지만 '-엔'이 실현되지 않은 '-ᄃ라/과라/고라'도 인용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선어말어미로 다루고 있는 '-노/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제주도 방언의 보조어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 표준어 보조어간에 대응하지만, 표준어 '가고 싶다'에 대응하는 '가고 시프다, 가고프다, 가고정 ㅎ다, 가고저라 ㅎ다' 등 특이한 형태도 나타난다. 보조용언이 본용언과 결합할 때는 일정한 보조적 연결어미를 요구하는데, 제주도 방언에서는 '-앙/엉' 또는 '-안/언'이 연결되는 것도 특이하다.

4) 어휘 · 의미론적 측면

제주도 방언에는 다른 방언과 음운변화나 기원을 달리하는 형태가 많고 몽고

관적 믿음에 근거하여 사태를 확정적으로 파악하므로 확인법의 테두리에 넣었다. 중세어 '-과라'는 직접인용문에 나타난다.

- 43) 즈므라가니 일을 뉀 해연 오과렌 ㅎ명 오란.(30쪽), 그이가 침 가서 그냥 광주강 살ᄃ렌 ㅎ여.(401쪽) <『한국구비문학대계』 9-3에서 뽑음.>
 아침 일찍 일어나고라/일어나ᄃ라.(아침 일찍 일어났다.), 나도 젊은 때 미남이고라/미남이ᄃ라.(나도 젊은 때에는 미남이었다.) <이상 박용후(1988:23)에서 뽑음.>
 박용후(1988:23)에 보이는 예문을 보면 '-ᄃ라'가 직접인용문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예문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어, 만주어 등 차용어와 관련된 어휘도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비바리’, ‘짱’ 등은 다른 방언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어휘이고, ‘누네누니’, ‘마농’, ‘굴루기’ 등은 특이한 음운변화를 겪은 것이다. 말 이름인 ‘가라몰’, ‘절다몰·적다몰’ 등은 몽고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몽고어에 대한 문제이다. 석주명(1947:127~130)에서 몽고어와 관계된 말이 240여 개로 수집되었고, 이를 석주명(1971:142~148)에서는 184개로 수정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기문(1985)에서 “제시된 몽고어 단어들 중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으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차용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예들이 눈에 띈다.…”⁴⁴⁾ 말[馬]과 몽고어 ‘모리’(mori), ‘아방[父]과 몽고어 ‘아바’(aba), ‘어멍[母]과 몽고어 ‘어머’(eme)는 차용어가 아니라 同源語로 다루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동원어와 차용어를 구분하지 못한 연구나 발표⁴⁵⁾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제주도 방언에서 만주어 차용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극히 일부 어휘에서 만주어 계통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어휘가 있다. 이들 대부분은 동원어 관계에 말미암은 것이지만, 접촉에 말미암은 것도 없지 않을 것이다.

제주도 지명 연구에 있어서도 옛 문헌과 옛 지도, 비석 등에 표기된 한자 표기와 행정 지명에 쓰이는 한자 표기를 그대로 믿거나 한자의 뜻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의 역사적 연구⁴⁶⁾에서 탐라국 건국기의 거주구획은 5 徒 체제였다고 하고, 一徒, 二徒, 三徒에 別徒(別刀)와 外徒(內·外都)가 추가된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제는 앞의 세 지역의 徒는 고유어 ‘니>내’의 훈독자 표기이고, 刀는 ‘도’의 음가자 표기, 都는 ‘도근내’의 ‘도’의 음가자 표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불투명한 역사 전설에 껴어 맞추는 논리는 배격되어야 한다.

서귀포시에 정방폭포가 있다. 이 정방폭포의 이름을 따서 행정명을 ‘정방동’이라 했을 정도이다. 그런데 『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 산천)에 正毛淵으로 표기되었고, 『탐라지』(정의현, 산천)와 『탐라순력도』 등에 正方淵으로 표기되었

44) 김기선(1998), “중세 몽골어와 제주방언의 차용·기원 관계”, 1998년도 탐라문화연구원 소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 자료. 이 발표문은 자료의 오류는 물론이고 기술상의 오류도 너무 많다.

45) 신용하(1998), “탐라국 건국의 신연구: 탐라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 『탐라사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제1회 제주사정립 학술심포지엄 발표 자료.

다. 민간에서 '정무시'란 음성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正毛淵과 正方淵은 '정모소'의 한자 차용 표기임을 알 수 있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조선 후기의 『제주군읍지』(『제주지도』) 등에 正方瀑(『탐라지초본』)이 正房瀑布로 표기되면서 오늘날은 원래의 이름이 사라져버렸다.

오창명(1998)⁴⁶⁾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명을 전설 따라 삼천리식 해석 또는 건강부회한 해석, 이두 표기에 대한 몰이해에 의한 해석을 계속하는 한 제주도 지명에 대한 올바른 음상과 뜻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계속하여 엉뚱한 한자를 쓰다가는 순수한 우리말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엉뚱한 해석을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5) 자료집 및 사전의 발간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나중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자료집 형태로 묶여져 나와야 한다. 자료집은 단순히 방언자료집 형태일 수도 있고 방언 사전의 형태일 수도 있다. 우리는 앞에서 방언 형태소의 설정 문제와 표기의 문제를 생각한 적이 있다. 자료집이나 사전을 엮거나 만들 때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형태소와 표기의 문제이다. 특히 음운론적인 차원의 연구를 위한 것이라면 로마자로 만들어진 국제음성기호나 문자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의 전사는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개 형태론적인 차원을 고려한 사전류가 만들어지게 마련인데 이 경우에도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의 설정 문제와 표기법의 일관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주도 방언에 있어서 음운론적인 차원을 고려한 자료집이나 방언사전류는 현평효(1961, 1985)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⁴⁷⁾ 등이 있을 뿐이다. 형태론적인 차원을 고려한 자료집이나 방언사전류는 석주명(1947, 1971), 박용후(1960, 1988), 현평효(1961, 1985), 제주도(1995)⁴⁸⁾ 등이 있으나, 석주명의 것은 비전문가의 것으로 이용에 주의해야 할 것이 많고 다른 것도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새롭게 엮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6) 오창명(1998), 『제주도의 이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47)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한국방언자료집』 IX(제주도 편).

48) 제주도(1995), 『제주어사전』.

이외에 자료집의 경우 민요나 무가, 설화, 신화, 민담류 등을 모아놓은 자료집들이 있는데,⁴⁹⁾ 국어학적으로 연구할 때는 표기상의 문제를 고려해서 이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지명자료집의 경우는 표기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설을 지명의 유래에 바로 결부시키는 오류가 많다. 국어사전류에 '손돌이추위, 손돌이바람, 손돌바람, 손돌풍(孫丕風), 손석풍(孫石風)'이 표제어로 올라 있고, 뱃사공 손돌이라는 사람에 관한 전설이 얹혀있다고 한결같이 설명하고 있으나, 이기문(1998:166~170)에 의해 '손돌'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강화도로 건너는 좁은 물목의 이름임이 밝혀졌다.⁵⁰⁾ 이렇듯이 엉뚱한 전설에 결부시켜 지명을 설명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제주도 지명자료집의 경우도 아주 심하다. 앞으로 발간되는 지명자료집은 표기의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함은 물론 이러한 설명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Ⅲ. 마 무 리

지금까지 제주도 방언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연구를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과거의 연구에 대한 평가를 가급적 유보한 채 아직까지도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형태소 분석과 표기 문제에 대해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언급하였다. 그것은 국어의 문법 체계가 공존하는 다양한 문법형태소들의 대립에 의하여 짜여지므로 형태론적 분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형태소들에 기초하여 모든 통사·의미론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49) 진성기(1976), 『남국의 민담』, 형설출판사.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현용준·김영돈(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9-1(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용준·김영돈(1981), 『한국구비문학대계 9-2(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용준·김영돈(1983), 전게서.

김영돈·현용준·현길언(1985),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진성기(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50) 이기문(1988), "납청장, 손돌바람, 안동답답이"(어원탐구 6), 『새국어생활』 8-3호, 국립국어연구원.

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주도 방언의 구조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형태소들의 체계를 짜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구조 기술 언어학의 형태소 분석 방법을 발전시켜 제주도 방언에 알맞은 형태소 분석 이론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제주도 방언은 국어의 하위 방언이다. 그러므로 공시적 기술을 한 것으로 연구를 끝내서는 안 되고, 국어의 포괄적 문법 체계를 염두에 두면서 다른 방언과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